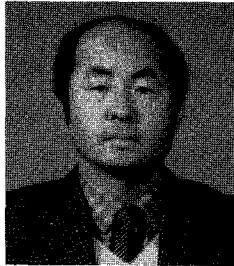


# IMF시대의 종계업 경영합리화 전략



배 성 황  
(주)삼화농원 대표

**사** 람 삶이란 끊임없는 도전과 좌절, 성취와 회열이 반복되는 가운데 성장하고 세월이 흐르는가 보다.

몇 달전만 해도 닭고기, 계란 수입개방에 따른 우려와 대비책으로 부산하던 우리 업계가 무엇하나 변변히 준비된 대응책 없이 IMF라는 엄청난 파고를 맞고 있는 우리는 너무나 방

황속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것이 현실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러나 지금 당장 눈앞에 닥친 현실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지고 이러한 어려움을 대응하는 방법은 각자 다르게 대처하리라고 본다.

어떤 사람은 그저 막연히 습관적으로 살다보면 상황이 변하겠지 생각하고 안일하게 대처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장래의 여러 가지 상황을 예측하고 이에 대비하는 전략을 세워보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워낙 변수요인이 많은 사업이고 보니 정확한 여러 가지 통계나 자료를 가지고 판단할 수 없는 실정이라서 때로는 사회 현상에 반대로 대책을 세워 위기를 넘기는 경우도 있으나 원칙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예상할 수 있는 자료를 가급적 많이 구체화하여 긍정적인 자세로 과감한 결단을 내리도록 강요 받는 것이 위기에 처한 현실이 아닌가 생각한다.

경기가 하락하고 어려움이 닥칠때마다 똑같은 방법으로 그저 환우나 하고 기다리면 다시 회복되겠지 하는 막연히 기대하기엔 차원이 다른 상황으로 변화였다.

흡사 망망대해에서 나무조각을 잡고 있는 난파선의 선원 심정으로 그동안의 관행처럼 되어 온 종계업계의 몇가지 문제점을 열거하여 종계업의 위상을 파악함으로써 앞으로 각 농장이 장·단기적인 대응전략을 세우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 1. 기본 원칙을 무시

종계업은 생명을 다루는 산업이므로 과학적인 방법으로 접근, 관리할수록 원칙적으로는

생산효율이 좋아지는 것이 당연하다. 아마도 all in-all out을 모르는 종계업자는 없을 것이다. 동일품종, 동일일령을 계사 단위가 아닌 농장 단위로 입추 출하하는 것을 의미한다. 더군다나 출하후 완전한 세척과 소독은 필수적일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현실적인 어려운 여건을 내세우며 원칙에 벗어나는 시설, 사양관리를 하면서 이 정도는 눈에 보이지 않으니 별문제 없겠지 하고 자위하면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 현실일 것이다.

더욱이 최근의 개량된 종계는 그 종계가 필요로 하는 요건 즉, 주위환경, 사양관리, 영양, 위생 등 모든 여건이 충족되어야 본래의 성적을 낼 수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일반화 되어있는 잘못된 관행으로는 부화장과 종계장이 구분 격리되어야 하고 육성단계, 산란단계도 농장별로 한 일령으로 구분해야 할 것이다.

최근의 많은 정책자금으로 지원되는 시설들 중에도 쓸데없이 원칙을 무시한 고정시설 투자를 하여 비싼 외화를 낭비하는 시설이 계속되고 있어 착잡한 마음을 가지게 한다. 이러한 시설들은 장차 있을 수도 있는 산업의 구조 조정 시에 투자된 가치를 가질 수 있을지가 의문이다.

또 사양관리에서도 권장되는 여러 가지 기술이나 권장되는 프로그램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뒤떨어진 기술로 습관적인 관리가 일반화되어 있는 것 같다.

권장되는 기술이나 프로그램은 과학적인 방법으로 여러 가지 사양시험이나 검증을 거쳐 나온 자료이므로 원칙을 무시한 적당한 프로그

램으로 관리가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사료 영양면에서도 종계의 각 품종별로 권장되는 사료의 영양수준이 따로 있으나 현실적으로 일반화된 영양수준으로 관리가 되고 있다. 지속적으로 선택한 품종에 대하여 특성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영양관리를 하는 것은 좋은 성적을 올리는데 필수적이다.

위생측면에서 보면 동일 농장에서 몇가지 품종을 사육하는 경우가 아직도 많이 있는데 이것은 마니커 품종으로부터 시작된 기복이 심한 경기에 대비하고자 하는 경영전략이라는 점에서는 이해가 가나 전문 종계업이 요구되는 이 시점에서는 동일 농장은 동일품종으로 전문화하여 농장위생의 하향 평준화를 막고 품종에 적합한 사양관리, 영양수준을 맞춰줌으로써 생산성을 올릴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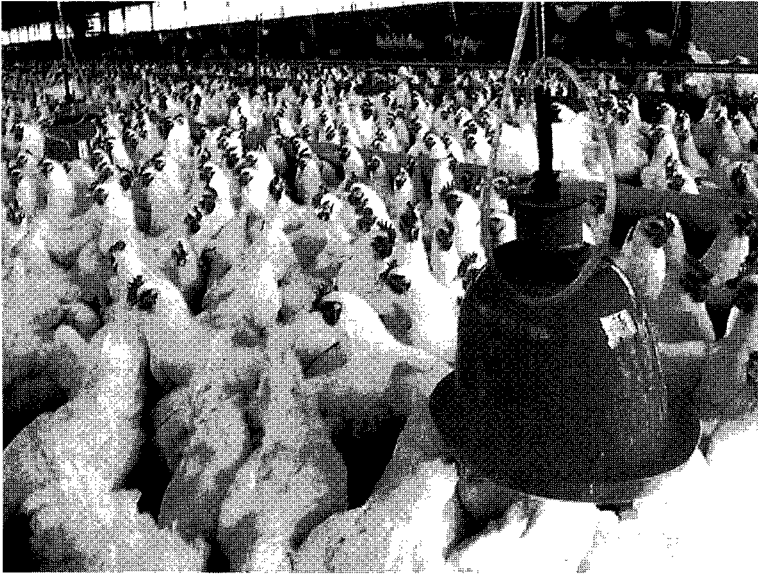
## 2. 부족하고 미흡한 육성시설

종계의 생산성적은 육성기의 육성성적에 의하여 좌우된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육성시설을 생각해보면 대부분 최초 2~3주령까지의 영양 및 체중관리와 잘 짜여진 위생 프로그램은 산란성적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지만 우리는 좋은 육성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가장 중요한 육성시설이 농장 한쪽 귀퉁이에서 천대받든지 아니면 타 시설을 임시로 몇주간 활용하는 경우도 있다.

육성기에는 산란을 하지 않고 경영에도 당장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소홀히 생각하여지고 있는 것 같다.

좋은 육성시설이 종계 산란농장과는 별도로 격리된 산란농장 시설의 50%는 있어야 정상이



너무 벅찬 일이므로 국가에서 방역위생 대책을 세워주는 것이 필수적이다.

세계적인 질병의 흐름을 파악하고 국내의 발생 동향에 따라 적절한 대응책과 백신프로그램을 권장해 주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 적절한 백신 프로그램 개발, 새로운 질병유입의 차단, 새로운 질병 발생 규명, 또 이에 대한 대책이 업계와 관계기관과의 정보교류 및 협조로 적극적인 대응책이 꼭

다. 자체농장에서 시설하기에 부담이 되면 전문 육성농장과 역할을 분담하여 공동으로 활용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이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도 투입된 생산원가는 충분히 인정하여 중계 육성사업이 건전하게 육성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해야 될 것이다.

최근 많은 정책자금 지원이 농가 위주로 지원되지 않고 이러한 근본이 되는 중요한 시설을 선별적으로 집중지원 하였으면 보다 더 효율적이었을 것이라고 판단한다.

### 3. 안개속을 헤매는 방역 위생대책

중계업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틈만 있으면 공격하려는 질병과 이를 방어하려는 인간과의 싸움에서 승패가 판정 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러한 질병의 동향을 그때그때 파악하고 연구하여 대책을 세우는 것은 개인이 하기에는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는 필요한 정부조직과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바 ND백신을 부화장에 무상공급하여 주고 부화장에서는 백신서비스를 해주는 것이 현실성이 없어 백신을 쌓아두고 있다가 폐기하는 어처구니없는 낭비보다는 이러한 재원을 양계 위생의 근본적인 대응에 집중투자하여 안심하고 정부에서 권장하는 백신과 백신프로그램으로 효율적인 위생대책이 세워지기를 기대한다.

### 4. 잘못 시작된 계열화 지원 정책

계열화는 육계산업의 꽃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으나 사업이 방대하고 위험부담이 많기 때문에 대단히 어려운 사업이다.

수직계열화나 수평계열화나의 논란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으나 지난 몇 년간 정부의 계열화 정책을 볼 때 수직계열화를 위한 지원을 많이 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종계사육 부분은 계

열화 사업에서도 어려운 부분중의 하나이지만 좋은 싫든 한 동안 병아리 수급에 애로를 느낀 계열업체가 직접 종계 사육을 하고자 많은 투자를 하고 직접 생산을 하고 있으나 지금쯤은 수평계열화로 역할분담을 하는 것과 직접 투자하여 생산하는 수직계열화를 비교해 볼 때가 되었다.

계열업체마다 평가가 다를 수는 있겠지만 기존의 종계 업체들은 여러 가지 부담을 못 이기고 소위 소사장 제도로 농가형태를 전환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보면 애초에 계열업체가 직접 종란을 생산하는 것보다는 기존 농가와 협력관계를 맺고 역할분담을 하였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또 차라리 '96년부터 농림부에서 종돈의 위생적인 개량, 생산대책을 위하여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전문종계업 육성사업”처럼 GPS농장을 중심으로 종계장을 Block화하여 효율적인 조직으로 만들었다더라면 지금보다는 계열업체나 종계농가의 상황은 훨씬 좋았으리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농림부로부터 “전문 종돈업 육성사업”과 유사한 “전문 종계업 육성사업”을 검토·의뢰하였으나 종계업계 자체에서 불필요하다는 업계의사를 표시함에 따라 정책 입안이 되지 않았던 사실은 기억할 필요가 있다. IMF여파로 정책지원이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2차 농어촌 구조조정 사업에는 “전문 종계업 육성사업” 계획이 세워져 있는 것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 5. 기록없이 감으로 하는 종계업

생산성 향상은 기록을 토대로 분석하여 성적

을 평가하고 문제점을 찾아내어 필요시 최소의 투자를 하여 최대의 효과가 나도록 적절한 투자와 개선을 해 나감으로써 가능하다.

그러나 기록을 제대로 하는 농장은 많지 않다. 외국의 육종회사에서는 국내에 GPS를 공급해주고 PS의 성적을 파악하여 육종 자료로 활용하고자 종계장의 성적을 요청하나 불행히도 그러한 요청이 있을 때마다 무안하고 당황하곤 한다.

물론 지속적으로 경기가 침체되고 종계업 자체가 사업성이 없어서 그런면도 있겠지만 종계업과 유사한 국내의 양돈농가들은 농장성적을 세밀하게 기록하여 프로그램을 서비스하는 주체에서 개별 농가의 성분 분석과 상대적 평가를 하면서 서로가 발전하여 지금은 세계적인 성적이 국내에서도 나오고 있는 것을 보면 종계업이라고 다를 바 없으니 노력만 하면 세계적인 수준의 성적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망망대해에서 먼 항해를 하면서 현재의 위치를 파악하여 보듯이 어려운 사업여건속에서 정확한 기록은 땀을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수적이다.

한번에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각 종계장의 여건에 따라서 무엇이 문제이고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인가가 파악이 되면 조금씩이라도 현실적으로 가능한 부분부터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각자가 가장 효율적인 사육규모를 파악하여 업계가 합리적인 역할분담을 하고 종계장, 사료회사, 약품회사, 방역당국 및 계열업체가 신뢰를 바탕으로 다같이 협조하여 IMF의 험난한 파고와 개방화의 물결을 헤치고 종계업이 하루 빨리 정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양계**